

2026년 군산시 일자리정책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6. 3. 27.(금) 14:00 ~ 15:05
장 소	시청 4층 상황실
참 석 자	위원 : 15명(당연직 1, 위촉직 14)
회의내용	'25년 일자리 실적 및 '26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안) 보고, 자유토론 등

< 회의록 >

1. '25년 일자리 실적 및 '26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안) 보고	
사회자	○ '25년 일자리 추진현황 및 일자리정책위원회 운영방안, 2026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보고 진행
일자리 경제과장	<p>【2025년 일자리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만15~64세 고용률은 68.1%, 청년 고용률은 40.6%, 여성 고용률은 57.5%로 지역고용 회복세가 뚜렷한 한해였음. ○ 2025년 발굴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으로는, 추진중 2개사업(소상공인 신규채용 4대보험료 지원, 청년일자리 상생 내일채움공제), 재검토 4개사업(소상공인 근로자 근속장려금, 민생일자리 고용지원, 사업주 출산 대체인력비, 청년근로자 근속 장려금), 장기검토 3개 사업(산업단지 스마트 렌터카 지원, 군산형 외국인 근로자 채용지원, 통합일자리정보 알림 플랫폼 구축)이 있음. <p>【2026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일자리 비전은 “골목부터 산업까지 민생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도시 군산” 으로 골목상권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일자리,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일자리, 청년의 꿈과 삶을 잇는 청년정착형 일자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신산업 일자리 4대 전략 추진 예정이며, ○ 올해 목표는 고용률 68.2%, 취업자수 142,500명으로 상향 설정함. ○ 4대전략별 핵심사업 설명

2. 자유토론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람.
김진아 위원	○ 청년뜰에서는 주거정착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터의 개별 사업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별 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함. ○ 매년 지스코에서 운영되던 취업박람회도 올해 추진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밝히며, 해당 사업이 중단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아울러 취업지원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는 대체사업 추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노사계장	○ 상반기에 일자리지원센터와 기업지원과가 협력하여 미니취업박람회 형태로라도 추진해 보려고 했으나, 선거 시기와 맞물려 추진에 부담이 있어 진행하지 못함. 향후 대학교 학기 시작 전에 맞춰 8월경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
위원장	○ 소상공인 연합회장님 의견 부탁드림.
문모세 위원	○ 청년 창업 지원과 함께 세무·경영 관련 사전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인구 감소와 소비시장 분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외지 인구의 재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일자리 및 정주기반 마련 노력이 필요함.
김경희 위원	○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등 군산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준비가 부족하면 지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만큼, TF팀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하여 기업도 성장하고 지역도 함께 살아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김선화 위원	○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실적이 잘 나오는 사업은 제대로 평가하고 지원도 더 해줬으면 좋겠음. ○ 정책들이 대부분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중장년 인구 비중도 큰 만큼 그에 대한 정책도 필요함. 창업지원도 청년창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중장년이나 시니어 창업 쪽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보완이 필요함.

위원장	○ 신규사업 제안하실분 있는지?
김선화 위원	○ 창업지원은 창업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 외에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창업 사관학교 및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해당 사업이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람.
김진아 위원	○ 청년뜰에서도 윈스톱 방식으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창업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연간 2억 원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음. 창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창업 관련 예산을 확대해주시길 바람.
위원장	○ 창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군산의 인구 규모와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예상 수입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김선화 위원	○ 요즘은 로컬창업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1인 창업이나 1인사업자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막상 창업을 하려고 보면 사업자 등록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창업사관학교나 관련 센터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면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문모세 위원	○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노인일자리도 단순 환경정비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안내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위원장	○ 군산은 체류형 인구가 많음. 다만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의료는 전북대병원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고, 교육 쪽에서도 특목고 유치 같은 부분을 보완해서 정주 여건을 높이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임.
홍소연 위원	○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활용 가능한 노인의 유희인력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니, 기업에서도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야 하며,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최기혁 위원	○ 조선소가 다시 가동되고 있는 만큼, 지역 생산품을 이용하는 유통구조도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함. 지역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지역 안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 지역에 활력도 생기고, 지역 돈이 도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햇빛마을처럼 소규모 발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 집중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임.

박구용 위원	○ 일자리사업은 결국 기업을 유치해야 가장 많은 일자리가 늘어남. 특히, 군산은 지금 3대 호재가 옆에 있고, 준설토 투기장 건설 같은 부분으로 외부 건설인력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임. 그런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대차 투자나 데이터센터 구축, 현대중공업 같은 큰 산업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것임.
유승각 위원	○ 2024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퍼센트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나, 50퍼센트만 지원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에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한계가 있어 시에서 지원대상이나 범주, 규모 등을 조금 더 넓혀서 보완해 주면 좋겠음.
김권호 위원	○ 신산업 분야에서는 어청도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 기자재 설치 같은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니, 시에서도 이런 쪽을 잘 챙겨 보면 좋겠음. 중진공에서도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면 좋을 것.
강승구 위원	○ 시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다만 여러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군산 지역의 산학연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행정 내부 TF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형 TF도 운영한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위원장	○ 다양한 의견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음.
3. 폐회	